



# 총계수입조절로 계획생산 성공

—1973년 총계수입추천 업무를 회고하면서—

설 동 섭  
<축산시험장·농학박사>

## 1. 수급조절의 경위

1971년 후반기 부터 1972년 상반기에 걸친 양계공황은 한국의 양계사상 그 유례가 없던 것으로서 규모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도산하였던 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의 큰 악몽이었다. 그 이전에도 2~3년의 주기로 양계의 불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공황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비교적 회복도 빨랐던 것이 과거의 불황현상의 특징이었다.

최근의 공황이 어떤 원인에서 빚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양계인 스스로가 논의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게 된것도 처음있는 일로서 이러한 움직임은 일찍부터 의당 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우선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여념이 없던터라 공동이익에 대한 문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것이 막상 미증유의 공황때문에 10여년간 확실히 확장했던 양계장이 도산하게 되면서 부터 겨우 이러한 공황을 우리 양계인 스스로가 막아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공황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가금협회의 간부들이 사계의 권위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과가 가장 큰것이 외국으로부터의 총계 도입을 너무 방만한 나머지 실제 수요보다 많이 수입된 총계에서 실용계가 과잉생산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가금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타개책은 수입총계의 수수를 제한 조절해 달라는 것

이었고 당국은 과거의 예로보아 양계인 스스로가 도입수수를 제한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금협회나 부화협회에서 직접 말아서 처리해 줄것을 종용 하므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계인이 이 업무를 직접 하도록 된것이다. 그 사이에 가금협회와 부화협회가 서로 이 업무를 맡으려고 다소 잡음이 없지 않았으나 1972년 2월 21일자 농림부 공고 제426호에 의거 총계도입을 하고저 하는자는 가금협회를 경유토록 지정 되므로서 가금협회가 대행케 되었다. 즉시 협회는 총계도입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문위원 10명을 위촉 2월말 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마침 필자는 비록 양계인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의 대표로서 본 위원회에 말석이나마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총계추천업무를 심의하는데 제1회와 마지막회를 제외하고는 10여차례 참여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기치 않았던 저항도 많이 받았고, 비난도 적지않게 들었지만 여하한 무리없이 무사히 예정된대로 끝낸것은 꼭 다행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양계인들이 총계추천업무가 마치 몇사람의 독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심을 갖고 있다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어 몇마디 글을 써서 양계인들의 이해를 촉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한조절을 실시한 이후 가금생산물의 가격이 올라 경기가 회복되었는데 이에 따라 의례히 일어나는 병아리의 품귀현상을 마치 가금생산물의 수요에 공급이 극히 부족한 것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이라

도 이해에 도움이 될까해서 느끼고 있는 소견을 몇가지 적어 보려고 한다.

## 2. 수급 조절원칙

당초에는 1971년도에 도입된 P.S의 절반을 1972년도 도입허용량으로 정하여 수입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것은 양계의 불황이 없었던 1970년도의 도입추천량을 기초로 계산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다음 도입하는데 추천위원회의 자유재량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종계업자의 기록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971년도 도입실적에 따라 개인별 퀴-타를 정하여 퀴-타범위내에서 추천을 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기준년도를 1971년도로 하였기 때문에 1970년도에는 종계를 수입했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1971년도에는 수입하지 못한분들이 퀴-타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겨 이런 특수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허용량의 10%를 예비 퀴-타로 보류시켜 놓았던 것이 있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안배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비록 퀴-타는 배정받은 것이 있지만 불황때문에 받은 타격으로 종계수입이 불가능한 분이 많이 나올수 있을 것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전체 수급을 위하여 1972년도 한해에 한하여 퀴-타를 일시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퀴-타를 이권화하여 일정한 코밋션을 붙여서 이양한다는 듣기 거북한 소문이 나돌아서 퀴-타이양에 문제점이 되었다.

다음에는 신규품종은 일체 수입을 금지 하였다 당초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게된 이유의 하나로서 품종을 잡다하게 허용하여 마치 닭 품종의 국제전시장과 같은 인상을 주는 현실을 교정하여 능력이 좋고 좋은 품종을 양계농가에 권장할수 있도록 기히 수입된 품종중에서도 좋지 않은 것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좋은 품종으로 전환하도록 권유 할것을 의결한바 있기 때문에 신규품종허가는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수한 신규품종을 수입하는 것에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단 실용계 베이스로 가금협회에 시험적으로 출품하여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

이 인정되는 품종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종계가 좋지않아 기히 인정된 타품종으로 전환하고 싶을때는 현종계품종으로 얻은 퀴-타 범위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 하므로써 품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P.S를 수입하여 실용계(C.C)를 생산판매하는 종계장에 대하여 규제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시설이다. 이것은 질병의 전염 특히 외국종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질병에 대한 예방문제가 가장 중요시 된다. 적어도 P.S 종계장은 C.C농장과는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부화장과 종계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목욕시설까지 되어 있으면 완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계장의 형편을 보면 경영상태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설기준을 설정하여 강요해 보았자 기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당장 고칠수는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하여 새로히 옮기거나 신규설치를 할때 적용토록 하고 새로히 시작하는 종계업자는 이 기준을 준수토록 종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G.P.S에 대하여는 P.S보다 C.C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준수사항으로 각 G.P농장에 시달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10% 예비량은 앞서 말한 70년도 도입실적이 있으나 71년도 도입실적이 없어 희생당하는 사람과 능력검정에 우수한 성적을 낸 계종에 대하여는 그 출품자에 한하여 보-너스 형식으로 수수를 분배 하여 주었다. 이상과 같은 4~5가지 원칙하에서 종계도입심의에 임하였다.

## 3. 수급조절 결과

전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원칙하에서 매월 1~2회씩 위원회가 소집되어 종계수입추천을 심의한 결과 대체로 종계수입의 제한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성공 하였다고 볼수 있다. 표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 수입추천은 산란계에 있어서는 71년도의 30%, 육계는 41%에서 끝났다. 이 수량은 P.S상태로 외국에서 직접 수입되는것 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71년도에 이미 들어온 G.P.S에서 생산된 P.S를 합하게 되면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란계가 71년도의 67%,

표 1. 산란계 P.S도입 현황(단위 : 수)

구분	년도별	1970	1971	1972	비 고
도	입	200,400	182,550	54,632	
국	내	6,830	83,900	123,133	
계		207,230	266,450	179,765	

표 2. 육계 P.S도입 현황(단위 : 수)

구분	년도별	1970	1971	1972	비 고
도	입	151,470	287,350	118,013	
국	내	40,160	78,370	166,932	
계		191,630	366,720	284,945	

육계가 79%의 P.S가 공급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한조절된 양은 불과 산란계 33%, 육계 21%로서 산란계는 70년도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선에서 견제되었지만 육계는 P.S의 국내 생산량이 의외로 많아 70년도와 71년도 중간선에 해당하는 수량이 72년도에 공급된 셈이다. 그러므로 70년도의 공급량이 호경기에 약간 초과한 종계 공급량이라 한다면 그간 년년이 늘어가는 가급 생산물의 소비량을 계산에 넣는다 하여도 적절한 공급량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작년부터 마라병에 대한 예방약의 접종이 급작이 늘어서 70년도에도 30%가량 폐사되든 닭이 15%이하로 줄어드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방약접종에서 절약되는 수량도 실질적인 공급량 증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5%의 종계 수입을 절약해도 좋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70년도 수준보다 10%가량 적게 공급된 산란계의 경우일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70년도보다 5%가 증가한 종계수량이 72년도에 공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육계의 경우에서는 70년도 수준보다 20%가 증가된 종계가 72년도에 공급된 것이지만 새미브로가 하이브로로 교체되는 것이라든지 년년히 증가되는 계육 소비량을 감안 한다면 별로 무리없는 수량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축산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극심한 사료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란, 부로일러 할것 없이 가장 좋은 값을 받아 양계농가가 재산이 맞는 호경기를 유지할 수 있는것도

71년도에 비하여 불과 20~30%의 도입종계를 제한한 덕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양계인 여러분들의 단결이 여러분들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양계인 전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라고 하는것은 단지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의한 것뿐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처사가 있었고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도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떤분은 마치 기업의 자유를 위원회가 제한을 하고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필요 이상의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으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양계산업의 호경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것이다. 또하나 위원회의 구성인에 대하여 폭발만스럽게 생각하는 양계인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개 외국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절반이 업체인사 나머지 절반은 연구계통, 학계 및 행정부의 대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도 이런 원칙하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업체대표가 어떤분이나, 또 학계나 연구계통에서 나온 위원이 특정한 업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업자에 유리하도록 위원회를 끌고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가 보아서 위원회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위원들 스스로가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치우친 처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위원들도 가장 고심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종계수입을 할러 한다면 쿼-타를 이권화시켜 코밋션을 받는 것등 위원회로서도 제재를 가할수 없는 사항들이 가끔 일어나곤 하는데 이런것은 여러분이 모두 협력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4. 수급조절 업무의 방향

지금까지는 우선 시급하고 조미의 불부터 꺼야되는 실정이었으므로 종계수입을 조절하는데 그쳤지만 수입제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의의는 이미 우리 양계인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계 국산화문제를 촉진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국산중계가 부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계일방으로 우리 양계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외국의 시장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구라파제국에서도 5~6년전까지만 하여도 중계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여 왔지만 오늘날은 각기 자기나라 나름으로 좋은 중계를 국산화하여 우리나라에 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년년히 개량되어 나가는 국산중계를 앞으로 수입중계대신 보급하기 위하여도 중계수입을 점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조절과 국산중계의 개량,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는 수입중계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계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수입중계를 제한하게 되면서 중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병아리를 중계 병아리에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는 몰지각한 부화장이 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것은 비록 수입중계를 제한하기 때문에 좋은 중계가 구하기 힘들니까 모리배가 이 호경기를 이용해서 한푼 보자는 데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화업자는 경기의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좀더 계통이 확실하고 건강한 좋은 병아리를 양계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는 중계등록을 실시하여 적어도 양계농가가 가져가는 병아리는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보편적으로 우리축산인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일반 양계농가는 가난한 소자본을 가진 영세업자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에게 몇푼의 돈이라도 낭비를 시키게 하는 것은 곧 피를 착취하는 악귀와 같은 행위이다. 적어도 부화업자 내지는 중계업자가 사는 길은 양계농가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계업자는 망하지만 부화업자는 돈을 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공동동망(共倒同亡)하는 운명을 면할길이 없는 것이다. 부화업자가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여 주지않고 나쁜 병아리를 준다면 부화업자는 일시 돈을 벌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기르는 양계농가는 나쁜 병아리 때문에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음해에는

그 부화장의 병아리는 팔지않게 되므로서 자연히 부화업자도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상이 전체 부화량의 1/3이상이 되면 양계산업 전반의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므로 이런것을 우리 양계인 자신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계통있고 좋은 능력있는 병아리를 양계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첫째 중계등록을 실시하여 적어도 자기가 병아리를 가져오는 중계장은 어떤 계통의 닭이며,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연간 생산량은 얼마정도인가를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고시하는 것을 보고 알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자는 이 중계등록사업을 업자로 하여금 판매행위에 어떤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여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을 시비하는 중계업자들은 당초 수입계를 제한조절하러할때 맹렬히 반대하여 중계수입추천위원들을 비방하였든 사람들이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보시오. 오늘날 제한된 중계수수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비방하든 사람과 양계농가가 다 같이 사르파동이 극심한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호경기를 맞이하여 좋은 세월을 구가하는 입장에 서지 아니하였습니까. 중계등록자체도 업자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반대가 있습니까 우리양계인 모두가 좀더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봅시다.

둘째로 G. P. S 농장의 격리시설 문제입니다. 현재 P. S.를 도입하는 것보다도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면에서 G. P. S.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신 질병의 전파범위가 P. S.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크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런 질병전염과 관련하여 위생적으로 G. P. S.가 사육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P. S.계사와 G. P. S.계사의 닭이 서로 날아서 왔다 갔다 하는 비위생적인 농장이 있다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소문마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P. S. 농장의 시설도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G. P. S. 농장만은 반듯이 격리된 장소에서 운영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권장해서 듣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하는한이 있어도 기필코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 양계인 전체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절업무에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정식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종계를 외국에서 수입한 사례가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랬노라고 하지만 문제는 업자 스스로가 조절업무를 해방(害防)하는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면 그런 사례를 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국 애써하는 조절업무가 와해되어 오늘날과 같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 혼자 이익을 위하여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일로 인하여 이 조절업무가 와해되어 불경기가 온다면 자기혼자 돈을 벌 수 있을 것같은가를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합시다. 행정적으로도 그런 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종계수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끝으로 양계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수입 종계수급조절 하나만으로 양계경기가 회복되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다.

앞으로 국산제가 개량보급되면 이것은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금생산물 출하 조절을 만들어 국내 및 수출수요를 조절한다든지 양계사로 수급조절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금물의 계획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든지 해서 거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적어도 양계경기는 우리 양계인 손으로라는 기치하에서 우리 양계인 전체가 안심하고 양계를 할수 있는 안정된 경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계란, 부로일러 가격 변동 현황

계란가격 변동상황(1963~1972)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상승률
1963	3.90	4.15	3.26	3.30	3.78	3.93	4.17	4.65	5.77	6.22	5.82	5.70	4.54	
1964	5.34	5.84	4.95	5.65	6.48	6.45	6.66	7.17	8.74	9.42	8.24	9.42	8.24	
1965	8.02	8.02	7.13	7.53	8.25	8.68	8.76	10.00	10.58	11.16	9.00	8.47	8.80	
1966	8.67	8.05	7.70	7.85	8.50	8.98	8.97	9.38	11.17	10.44	9.18	9.23	9.01	
1967	9.48	9.44	8.53	8.83	9.33	9.50	10.26	11.00	13.03	12.45	11.30	11.02	10.35	
1968	10.45	9.83	8.90	9.47	10.04	9.86	9.15	9.65	10.20	10.30	9.30	9.00	9.68	100
1969	7.80	7.60	9.00	8.60	8.40	9.00	9.70	10.80	10.80	3.00	12.50	10.70	10.05	104
1970	11.30	12.40	10.85	10.07	12.20	11.97	10.75	10.60	13.10	12.80	12.40	11.35	11.65	120
1971	11.80	10.80	11.60	11.45	12.00	10.67	10.48	11.00	12.60	11.80	9.90	9.50	11.13	115
1972	9.24	11.03	10.88	11.66	12.04	10.18	9.99	11.63	13.12	13.17	11.22	10.88	11.25	116
	10.12	10.33	10.25	10.25	10.94	10.34	10.01	10.74	12.50	12.21	11.06	10.29	10.75	

부로일러가격 변동상황

1969	195	266	200	181	222	220	232	238	230	206	196	184	211.7	
1970	196	210	200	192	183	195	188	226	225	207	231	193	203.3	
1971	224	196	215	215	210	215	210	230	220	170	140	150	199.5	
1972	193	224	226	221	172	174	210	229	233	207	215	200	208.7	
	202	217	210	202	197	701	210	231	227	198	196	182		